

# 높으면 與, 낮으면 野 유리...코로나19 속 투표율 촉각

## 총선 D-9...광주·전남 선거판 흔들 변수

4·15 총선이 열릴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4·15 총선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표율은 총선은 물론 각종 선거에서 각 당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불어 여부도 주목된다.

5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투표율은 최근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투표율은 61.6%였지만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51.7%에 머물렀다. 전남에선 20대 총선 63.7%, 19대 총선 56.7%였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총선 투표율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역대 최저치인 46.1%를 기록했다가 19대 54.2%, 20대 58.0%로 점차 올랐다. 지난 2017년 대선 투표율은 77.2%,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로, 이 역시 역대 선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유권자의 관심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응답자의 72.7%가 '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보다 8.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4년 전 총선 투표율을 훌쩍 넘겨 60%대의 투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된다. 이 경우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낮을수록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는 과거의 등식이 성립할지

## 재외국민 절반 이상 투표 못해

여론조사 투표 의향은 늘어

## 무소속 현역 3명 선전 여부도 주목

도 관심이다.

하지만 변수는 코로나 19 사태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투표소를 찾지 않아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장 재외국민 투표에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총 57개국 93개 공관에 대해 이번 총선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

이들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8087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17만1959명)의 51.2%가 코로나 19로 투표를 못하게 된 셈이다.

투표를 못지 않게 광주·전남 선거구의 무소속 돌풍도 관심사다 역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적게는 1곳에서 많게는 4곳의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등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에 따라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소속 현역 의원은 광주 북구갑 김경진, 여수갑 이용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인화 등 3명이다. 이들은 야권 통합당인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행을 택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 민생당과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전을 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적력이 탄탄한 민생당,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 입구 휴일 선거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휴일인 5일, 광주 동구 무등산 입구에서 각 정당 운동원들이 피켓을 들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후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임종석 前비서실장 광주·전남 찾아 선거 지원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 특히 민생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 지원 활동을 해 이 지역 총선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6일 광주 동남갑 선거구와 북구갑 선거구를 찾고, 이어 7일 장흥과 목포 등지를 돌며 선거 지원을 한다.

현재 동남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와 각각 민생당, 무소속 후보가 경합을 펼치고 있는 지역 대표 격전지다.

동남갑은 민주당 운영덕 후보와 민생당 장병완 후보가 일전을 치르고 있고, 북구갑은 민주당 조오섭 후보와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표밭을 다투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지역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이들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다소 앞선 것으로 나



타내고 있지만 경쟁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 막판 조직력도 힘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목포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김원익 후보와 '정진 9단' 박지원 후보가 일전을 치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등 선거 운동 전면에 나서고 있다. 앞서 대표적인 접전 지역인 서울 광진구에서 임 전 실장은 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120만 8307명, 전남 159만 2538명 전국 4399만4247명... 총선 선거인수 확정

### 만18세 유권자 수 54만8986명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가 총 4399만4247명으로 확정됐다. 광주는 120만8307명, 전남은 159만2538명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번 총선 선거인(선거권자)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3일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수는 지난 20대 총선 때(4210만398명)보다 189만3849명(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투표할 국내선거인인 4382만2288명, 해외에서 투표하는 재외선거인은 17만1959명이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하는 인원은 4396만1157명,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재외국민 중 거주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은 3만3090명이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 수는

54만898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수의 1.2%에 해당한다.

유권자 연령대(이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인수 기준)는 50대가 864만9821명(1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835만7423명(19.0%), 30대 699만4134명(15.9%), 20대 679만6623명(15.5%), 60대 643만9959명(14.7%), 70대 이상 556만9535명(12.7%), 10대(18~19세) 115만3662명(2.6%) 순으로 나타났다. 40~50대 유권자가 1700만7244명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은 1200만9494명(27.3%)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217만3947명(50.4%)으로 남성(2178만7210명)보다 38만6737명 많았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1106만1850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46만5419명(19.3%), 부산 295만6637명(6.7%)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인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시로 26만3천338명(0.6%)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교육부,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2022년 개교 마지막 절차 넘었다

### 이달 중 캠퍼스 공사 설계 착수

한국전력이 교육부로부터 가까스로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허가받으면서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를 넘었다. 한전과 전남도 등은 향후 명문 대학 캠퍼스 조성,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역 발전과의 연계 등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5일 한전,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영상의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참석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인 설립 허가에 따라 한전은 향후 법인 등기와 총장 등 교원 확보 등 개교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

법인 설립 허가서가 오는대로 설립등기를 하고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대 총장의 경우 상반기 중 선임은 마치고, 교사 등 캠퍼스 공사 시 이달 중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2년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이다. 4년편제가 완성되는 2025년까지 대학 설립에 6210억원, 운영에 2079억원 등 모두 828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하고 있다.

학교 부지는 (주)부영이 무상제공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개교년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원

씩 총 200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한전공대의 성공적 개교와 운영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8289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의 마련과 학교 설립을 주도해 나갈 초대 총장 선임이 첫 선결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한전 측은 학교 개교시까지 3956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후에는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대학 설립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주주 반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9월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대학설립심사위는 재원 마련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두차례 심의를 보류하고 두차례 회의를 연기했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